이동하는 북한여성들과 원거리 모성: 친밀성의 재구성과 가족의 양가성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PLZ Forum for Ecozoic Era 2020

탈냉전기가 시작되면서 북한은 최악의 경제난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 시기를 기점으로 정치, 경제, 사회에 커다란 위기를 겪었다. 1990~1994년 사이에 북한과 소련의 무역 규모는 곤두박질쳤으며, 연이은 수해와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픔과 질병에 목숨을 잃었다. 경제난은 단순히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 전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사회주의 경제의 근간인 배급제가 무너졌으며, 공공의료와 계획경제 시스템도 멈췄다. 급박한 상황에서 북한 체제는 선군정치와 자력갱생을 정치 이데올로기로 내세우면서 위기를 돌파하려 하였고, 사실상의 비상체제(state of emergency)에서 여성의 삶은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었다.

고난의 행군 시기 자력갱생을 강조한 북한 체제는 결국 여성들이 가족의 부양을 책임지도록 방조하였다. 대부분의 여성이 국가 기간산업이 아닌 경공업에서 일하고 있었고, 고난의 행군 시기에 국가는 여성 노동력에 대한 통제나 규율을 약화함으로써 이들이 장마당에 나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결혼한 여성을 중심으로 한 조직인 여맹이 나서 가내수공업을 통한 경제활동을 독려했던 것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북한 전역으로 확산된 장마당은 199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상당한 규모의 시장으로 확장되었으며, 이제는 대부분의 북한 주민이 장마당을 통해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가 건설기 즈음부터 북한 체제는 모성 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바 있는데, 여성은 혁명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가정이라는 사회의 기본 '세포'를 책임지는 존재로 자리매김되었다. 1946년 해방 이후 남녀평등법을 제정한 것은 사회주의적 가치 아래 여성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시도였지만 한국전쟁의 상흔을 딛고 국가 건설을

위해서 '평등'이라는 가치보다는 여성 노동력을 활용하여 전쟁 피해 극복과 산업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우선시 되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국가와 가정이라는 영역에서 '혁명적 노동자'와 '희생하는 어머니'라는 사회적 책무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이 짧은 글에서는 북한 사회 변화라는 맥락에서 변화하는 여성의 역할을 추적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장마당 경제가 확산되면서 경제적 주체로써 새롭게 부상한 북한 여성의 정체성에 주목하면서 이들 중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이주 여성들의 원거리 모성과 가족의 의미 변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장마당과 북한 여성

초기 장마당은 농민 시장에서 발전한 것으로 설명된다. 고난의 행군기라는 의도치 않은 역사적 국면에서 등장한 것이지만 2002년 7.1. 경제개혁 조치가 단행되면서 합법화되었다. 최근까지 공식적인 장마당의 수는 적어도 436개로 추정되며, 각 장마당은 20,000여 개의 매대로 구성되어 있다. 매대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한 집단은 20~65세의 여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약 15%의 북한 여성이 장마당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홍민 외, 2016: 33). 북한의 계획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공업은 남성 중심의 노동력이 배치되어 있다면 장마당은 여성 중심으로 운영됨으로써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와 시장의 혼종성이 확인되기도 한다.

소위 말해서 '돈주' 혹은 '전주'라고 하는 북한 여성 자본가들은 장마당 매대에서 상업활동을 하는 것부터 고리대금업, 운송업, 건설업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는 국가의 계획경제의 일부분으로 참여하면서 원재료와 자본 등을 공급하고 이득을 얻는 것과 같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노동신문에서는 삼지연 건설 사업에 헌신한 18명의 인물이 거명되었는데, 이들 중 약 10명은 여성으로 판단된다. 즉 체제가 주도하는 커다란 건설 프로젝트에 돈주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고, 이 중에서 10명이 여성이라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그만큼 북한 여성은 현 북한 경제 체제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건설기부터 가부장적 사회주의 체계를 구축한 북한에서 여성 경제인의 약진은 사회 구조 전반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증거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북한 기초 단위로 알려진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역할에도 커다란 변화가 확인된다. 혁명적 동지애를 기반으로 남녀간의 사랑이나 결혼을 의미화했던 것이 개인적 친밀함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가정의 경제적 책임을 국가나 남성(가부장)이 아닌 어머니가 짊어지게 되었다. 이런 이유에서 최근 북한의 젊은 여성은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으며, 여성들 사이에서 경제적 책임에 기반을 두고 여성의 권리를 요구하는 사례도 확인된다.

이동하는 북한여성의 원거리 모성

척박한 경제난의 상황에서 북한 여성은 가정 경제의 책임자이자 전통적인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 경제활동을 위해 여성들은 도시와 지방을 넘나들면서 '되거리' 장사에 매진하기도 하고, 좀 더 적극적인 여성은 조중접경지역을 넘나들면서 중국에서의 경제적 활동에 나서기도 한다. 주지하듯 조중접경지역은 1,416km에 이르는 방대한 영역으로써 북한과 중국이 서로 마주하고 있는 접경지역이다. 조중접경지역에서 중국 쪽 지역에는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자리하고, 조선족 커뮤니티가 이들의 이동과 노동 이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조선족 여성 중에 상당수는 도시화와 글로벌 이주의 영향으로 타 도시로 노동이주를 떠난 터라 북한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특히 돌봄 노동의 영역에서 여성 노동력이 필요하고, 불법적 신분으로 중국으로 넘어온 북한 여성은 값싼 노동력을 내세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중국지역의 북한 여성 대부분은 돌봄 노동이나 식당, 마사지숍 등 같은 영역에서 일을 하게 된다. 상당수는 사사여행자로 비자를 갖고 있지만 대부분은 비자 기간이 만료된 이후까지 중국에 머물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법적 신분이 된 북한 여성들은 공정 영역에서 포착되지 않는 일자리로 숨어들어가게 되고, 상당수는 가사도우미와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일자리는 환자와 같은 집에서 거주하면서 집안일과 몸이 불편한 이들의 생활 전반을 돌보는 것으로 공안의 감시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거주지가 안정

적이고, 급여의 대부분을 북에 남겨진 가족에게 송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이동하는 북한 여성 대부분은 북에 남겨둔 자녀에게 생활비와 교육비 등을 보내기 위해서 중국에 머물게 되는데 주기적인 송금뿐만 아니라 물품이나 음식을 보내기도 하고, 정보를 제공하면서 자녀들의 교육 전반을 담당한다.

북에 남겨진 자녀들은 또한 어머니의 부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이유는 국가의 계획경제가 작동할 때부터 어머니의 물리적 부재는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친척이나 주변 이웃에게 아이를 맡기고 경제적 보상을 하는 방식의 양육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핸드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의 발달은 어머니와 자녀와의 정기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를 통해 북에 남겨둔 자녀와의 경제활동을 도모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청진 출신 북한 여성은 중국에서부터 국수 기계와 정보 등을 북에 남겨둔 자녀에게 제공하고, 자녀들은 국수와 빵을 만들어 장마당에서 경제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가족을 통해서 초국적 경제활동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이러한 방식은 결국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여성이 불법적 신분과 불안한 생활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중국에서 경제활동에 매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중국에 남겨진 어머니들은 점차 남겨둔 가족과 감정적 거리감을 느끼기도 한다. 핸드폰이나 송금 등은 가족과의 친밀감을 유지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자신들의 희생을 점차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자녀들을 마주하게 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전화통화를 할 때마다 송금을 요청하는 자녀에게 실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사랑과 친밀함보다는 경제적 이유로만 자신을 찾는 것 같은 가족들에게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 연구자가 만난 사례 중에서는 아들이 보고 싶어 다시 국경을 넘어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무도 자신을 반기지 않자 다시 중국으로 이주한 사례까지도 있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북한 여성들이 돌봄 노동에 종사하게 되면서 사실상의 새로운 가족을 중국에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돌보는 환자와 유사 가족 형태로 지내는 경우도 있고, 힘겨운 중국 생활을 버티기 위해서 동거나 결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에도 중국에서 만든 새로운 가족과 북한에 남겨둔 가족 사이의 감정은 다소 구별적이다. 새로운 가족은 자신의 안전을 유지해주는 도구적 성격이 강한 반면에 북에 남겨둔 가족에게는 미안함과 죄책감, 그리고 책임감이 함께 뒤엉켜 있었다.

대북제재와 북한 여성

2016년 대북제재 2270호 이후로 북한 민생의 광범위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북제재가 인도적 사안에 대한 예외조항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례 없을 정도의 강력한 제재는 북한 인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 체제의 계획경제 영역과 주민들의 민생 경제가 사실상 혼종되어 있는 북한 경제의 특성상 민생 경제의 타격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특히 대북제재는 북한의 취약 계층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여성들은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것과 함께 가정 폭력, 직장에서의 착취 등을 경험하고 있다. 거기에 코로나 팬데믹과 올여름의 수해는 북한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커다란 제약일 수 밖에 없었으며, 이 상황에서 초국적 경제활동에 나선 여성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북한 여성은 국가 형성기부터 끊임없이 사회적 의무와 책무를 강요 받아 왔다. 산업화의 역군으로 '노동영웅'과 가정을 이끌어가는 '어머니'가 바로 북한 여성이 감당해야만 했던 역할이었다. 강인한 북한 여성은 장마당에서 경제적 주체로 재탄생했으며, 그 과정에서 초국적 이동을 감행하고 중국에서의 이주 노동도 감당하고 있다. 가족은 초국적 형태로 진화 발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의 가족의 의미는 친밀성을 바탕을 둔 친족 집단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위한 도구적 성격으로 확장되고 있기도 하다. 국제제재, 코로나 팬데믹, 수해 등과 같은 자연재해는 북한 여성들의 삶의 전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가족 생존의 위협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Cho, Youngju, 2012, *The Practice of Women and Dynamics of Gender Regime in North Korea*, Ph.D Thesis, Ehwa Women's University.

Choe Sang-Hun, "North Korea's Leader Had Big Economy Plans. He Admits They've Failed." The New York Times, 2020-Aug=19. https://www.nytimes.com/2020/08/19/world/asia/north-korea-economy-coronavirus.html (accessed on 2020-Aug-20).

Choseon yosung [Korean women], 1996, vol. 3. Pyongyang: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 16

Choseon yosung [Korean Women], 1997, vol. 6. Pyongyang: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p. 15~16.

Cummings, Bruce, 2010, *The Korean War: A History*. New York: Modern Library.

Eleanor, Albert, 2019, "What to know about Sanctions on North Korea,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https://www.cfr.org/backgrounder/what-know-about-sanctions-north-korea (accessed on 2020-Aug-20).

Hong, Min and et al., 2016, *North Korea Market Information: Focusing on Official Market*, Seoul: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p. 33

Jeppesen, Travis, "Shopping in Pyongyang, and Other Adventures in North Korean Capitalism," *Washington post*, 2019-Feb-14.

Kim, Hyun A, 2019, *A Study on North Korean Migrant Women and Their Mothering Practices*, Ph.D Thesis,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Kim, Sung Kyung, 2020, "Mobile North Korean Women and Long-Distance Motherhood: The (Re)construction of Intimacy and the Ambivalence of Family", *Korean Studies*, 44, University of Hawai'i Press.

Korea Peace Now, 2019, *The Human Costs and Gendered Impact of Sanctions on North Korea*

Lee, Ok-hee, 2011, *The Sino-North Korea Borderland*, Seoul: Purungil,

Maresca, Thomas, "North Korean markets generate millions and may bring profound social change, report says", *USA Today*, 2018- Aug- 28th.

Nodong sinmun, 2017-May-7th.

Nodong sinmun, 2020-June-1st

Ryang, Sonia, 2000, 'Gender in Oblivion: Wome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Journal of Asian and African Studies*, 35(3), SAGE, p. 325